기출 해설도 역시

선혜국어

2017.4.8. 국가직 9급 나 책형 해설

선혜국어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jshgotgan

※ 범위 분석 및 총평

1. 출제 영역별 문항 수

대단원 분류	문항수	출제 영역	
언어 일반론			
국어의 역사	1	훈민정음(1)	
이론 문법	2	음운론	자음과 모음(1)
		형태론	용언의 활용(1)
		문장론	
화법(언어예절)			
어문규정	2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맞춤법(1) 띄어쓰기(1)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비문학	2	재배열(1) 내용 일치(1)	
문학	7	고전 문학	운문(1) 소설(1)
		현대 문학	시(2) 소설(3)
어휘	6	한자	성어(1) 표기(1) 독음(1)
		기타	다의어(1) 고유어(1) 접사 (1)

2. 총평

2017 국가직 9급 국어는 비문학(독해) 영역이 2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아 상당히 낮은 비중을 차지했고, 문법은 훈민정음을 포함하여 5문항이 출제되어 예년과 비슷하거나 1-2문항 정도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눈에 띄는 것은 문학(7문항)과 어휘(6문항)가 문제의 상당수를 차지한 것인데, 문학의 경우 대부분은 무난한 문제들이었지만 고전소설은 자칫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답을 찾기가 몹시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어휘의 경우는 총 6문항 중에 한자가 3문항 출제되었는데 한자성어나 표기 문제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단어들이 출제되었고, 독음 문제는 한자를 꼼꼼하게 대비하지 않은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어렵게 느껴졌을 단어들이 다수 등장한 것도 특징이다.

이번 시험에는 비문학이 많이 줄어들고, 문법보다도 문학이나 어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독특한 문제 구성비가 나왔지만, 통합지방직이나 서울시 시험에서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으므로 문법도 꾸준히 대비하면서 한자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문 1. 다음 시가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구지가」-

① 요구 - 위협 - 환기 - 조건
② 환기 - 요구 - 조건 - 위협
③ 위협 - 조건 - 환기 - 요구
④ 조건 - 요구 - 위협 - 환기

1. 정답: 2번
문제 유형: 고전운문 <구지가>의 내용 이해
▷ 선혜국어 심화 '고대~고려 문학 확인문제 [4-6]'
테마 특강 '문학이 열리다(고전시가 편)' 예상문제 2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구지가>는 가락국의 노래로 알려져 있으며, 수로왕의 탄생 설화 속에 삽입되어 전해지는 고대가요이다. 거북(신령한 존재, 기원의 대상)을 불러서(환기) 머리(우두머리, 왕)를 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조건)에는 잡아먹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부분의 위협은 주술요(소원을 비는 노래)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龜何龜何(구하구하)	거북아, 거북아,	▶ 환기
首其現也(수기현야)	머리를 내 놓아라.	▶ 요구
若不現也(역불현야)	만약 내 놓지 않으면	▶ 조건
燔灼而喫也(번작이끽야)	잡아서 구워 먹으리.	▶ 위협

문 2.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기출 해설도 역시

선혜국어

2017.4.8. 국가직 9급 나 책형 해설

선혜국어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jshgotgan

>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 정희성, 「저문 강에 삽을 씻고」 -

①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 지는 강변에 나와 삽을 씻는다.
② 화자는 강물에 슬픔을 퍼다 버리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③ 화자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④ 화자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해 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2. 정답: 4번
문제 유형: 현대 시 <저문 강에 삽을 씻고> 감상
▷ 선혜국어 2권 P.186 확인문제
테마 특강 '문학이 열리다(현대시 편)' 독해 적용 연습 5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정희성의 <저문 강에 삽을 씻고>는 가난한 노동자의 무기력한 삶을 그린 대표적인 노동시의 하나이다. 3-6연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 일이 끝나 저물어 /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를 통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강변에서 삽을 씻는 화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으며,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건설 현장 등에서 평생 삽을 들고 일을 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마지막의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를 통해 화자가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굴레를 표현했다.

그러나 선택지 ④의 내용처럼 화자가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거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한 것은 아니다. 화자는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를 통해 노동자의 슬픔을 표현했다.

문 3.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전국 시대 말,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 혜문왕은 동생인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어 구원군을 청하기로 했다. 이십 명의 수행원이 필요한 평원군은 그의 삼천여 식객 중에서 십구 명은 쉽게 뽑았으나, 나머지 한 명을 뽑지 못한 채 고심했다. 이때에 모수라는 식객이 나섰다. 평원군은 어이없어하며 자신의 집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었다. 모수가 삼 년이 되었다고 대답하자 평원군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인데, 모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모수는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신다면 끝뿐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고,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가 활약한 덕분에 국빈으로 환대받고, 구원군도 얻을 수 있었다.

① 吳越同舟
② 囊中之錐
③ 馬耳東風
④ 近墨者黑

3. 정답: 2번
문제 유형: 한자성어의 의미
▷ 선혜국어 2권 한자성어 편,
심화 어휘 테스트 2회,
테마특강 '한자가 열리다' P.56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는 한자성어는 '주머니 속의 송곳'을 뜻하는 '囊中之錐(낭중지추)'이다.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신다면 끝뿐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입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머니 속에 들어간 송곳은 뾰족한 끝이 주머니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 해설>

① 吳越同舟(오월동주):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
③ 馬耳東風(마이동풍):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
④ 近墨者黑(근묵자흑):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

문 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 "무겁죠?"
>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 "댁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구."
>
>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중에서 -

① '눈 덮인 길의 고랑'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②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달이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③ 영달이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

재로 인식하고 있다.
④ 백화는 처음에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으나, 영달이의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

4. 정답: 3번
문제 유형: 현대 소설 <삼포 가는 길>의 내용 파악
▷ 선혜국어 17.1-2. 단원별 문풀-동형 모의고사 1회 6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영달이가 떠올린 '대전에서의 옥자'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는지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본문 세 번째 줄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를 통해 백화가 발을 다쳐서 신음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어린애처럼 가벼운 백화를 등에 업고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는 서술을 통해서 백화는 영달이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를 통해 백화가 처음에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영달이의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이는 것도 맞다.

문 5.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 고장 난 시계를 <u>고치다</u>.

① 부엌을 입식으로 <u>고치다</u>.
② 상호를 순 우리말로 <u>고치다</u>.
③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u>고치다</u>.
④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u>고치다</u>.

5. 정답: 3번
문제 유형: 단어의 의미 파악
▷ 선혜국어 17.3. 동형 모의고사 8회 9번 일치
난이도: 하
<정답 해설>

다의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다의어는 문맥을 통해 해석해야 하는데, 주어진 보기가 '시계를 고치다'이므로 '고장난 물건을 수리한다'는 의미의 '고치다'로 보고 답을 찾아야 한다. '자동차를 고치다' 역시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한다는 뜻이므로 동일한 의미이다.

※ 고치다
「1」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
「2」 병 따위를 낫게 하다.
「3」 잘못되거나 틀린 것을 바로잡다.
「4」 모양이나 내용 따위를 바꾸다.
「5」 처지를 바꾸다.
「6」 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
「7」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

<오답 해설>

① 부엌을 입식으로 <u>고치다</u>.
- 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
② 상호를 순 우리말로 <u>고치다</u>.
-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
④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u>고치다</u>.
-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

문 6. 밑줄 친 말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u>시망스럽게</u> 놀지 않았다.
> - 최일남, 「노새 두 마리」 중에서 -

①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②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③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④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가벼운 데가 있다.

6. 정답: 1번
문제 유형: 고유어의 의미 파악
난이도: 상
<정답 해설>

'시망스럽다'는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는 의미의 고유어이다. 문맥상 '놀아도 여간 ~지 않게 놀았다'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노는 모양에 어울리는 말이 들어가야 하며, 부정적인 의미의 서술이 들어가야 하므로 짓궂다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도 있다.

<오답 해설>

②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활발하다
③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산만하다
④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가벼운 데가 있다: 잔망스럽다

문 7. 밑줄 친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은?

① 강염기
② 강타자
③ 강기침
④ 강행군

7. 정답: 3번
문제 유형: 어휘(접사)의 의미 파악
▷ 선혜국어 1권 P.104 관형사성 접두사 정리, 확인문제
난이도: 상
<정답 해설>

마른기침을 의미하는 '강기침'의 '강-'은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우리말이다.

<오답 해설>

나머지는 모두 '매우 센' 또는 '호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강(強)-'으로 한자에서 온 말이다.
① 강염기(強鹽基):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과 양이온으로 완전히 해리되는 염기.
② 강타자(強打者): 야구에서, 타격이 강한 타자.
④ 강행군(強行軍): 어떤 일을 짧은 시간 안에 끝내려고 무리하게 함.

문 8.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무를 강판에 가니 즙이 나온다. (기본형 : 갈다)
② 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 (기본형 : 불다)
③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 (기본형 : 이르다)
④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 (기본형 : 들르다)

8. 정답: 2번
문제 유형: 용언의 활용 양상 파악
▷ 선혜국어 17.3. 동형모의고사 1회 2번
2017 화룡점정 총정리 특강 67번 '대표적인 ㄷ 불규칙'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불은 국수'의 '불은'은 기본형이 '붇다'이며 'ㄷ' 불규칙 활용을 하여 모음어미 앞에서 어간의 'ㄷ' 받침이 'ㄹ'로 변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무를 강판에 가니'의 '가니'는 기본형이 '갈다'이며, 'ㄹ'탈락 규칙 활용을 하여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받침 'ㄹ'이 탈락한 것이다.
③ '놀지 말라고 일렀다'의 '일렀다'는 기본형 '이르다'가 '르' 불규칙 활용을 하여 모음어미 앞에서 어간 '르'가 'ㄹㄹ'의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④ '포장마차에 들렀다'의 '들렀다'는 기본형 '들르다'가 '一' 탈락 규칙 활용을 하여 모음어미 '-었' 앞에서 어간의 모음 '一'가 탈락한 것이다.

문 9.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쯤 돼지고기를 반 근, 혹은 반의 반 근 사러 가는 푸줏간이었다. 어머니는 돈을 들려 보내며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적게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

푸줏간에서는 한쪽 볼에 힘껏 쥐어질린 듯 여문 밤톨만한 혹이 달리고 그 혹부리에, 상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끄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힌 수염을 기른 홀아비 중국인이 고기를 팔았다.

애라고 조금 주세요?

키가 작아 발돋움질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 넣는 것과 동시에 나는 총알처럼 내뱉었다.

고기를 자르기 위해 벽에 매단 가죽 끈에 칼을 문질러 날을 세우던 중국인은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비계는 말고 살로 달래라 하던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하기 전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 봐 허겁지겁 내쏘았다.

고기로 달래요.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덥석 베어 내었다.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 오정희, 「중국인 거리」 중에서 -

① 어머니의 주의에 대한 '나'의 수용
②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③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④ '나'의 말에 대해 푸줏간의 '중국인'이 보여 주는 정서

9. 정답: 3번
문제 유형: 현대 소설 <중국인 거리>의 내용 파악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주어진 글에서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으며, 주된 공간인 푸줏간은 내용 전개에 특별한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가 일러준 주의 사항을 푸줏간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나

의 태도로 보아 어머니의 주의를 '나'가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아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고기를 덜 주거나 비계를 많이 주지 않도록 매양 같은 주의사항을 일러 주는 어머니의 태도가 드러난다.
④ 처음에 나의 말을 못 알아듣던 중국인은 나중에서야 알아듣고 '꾸룩꾸룩 웃으며' 고기를 베어 낸다는 서술에서 '나'의 말에 대한 푸줏간 '중국인'의 정서(고기를 적게 줄까봐 미리 할 말을 준비해서 보낸 엄마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나'의 행동에 대한 웃음)가 나타난다.

문 10.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생각이다.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앞의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슴속에 응어리진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애태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을 이루는 쌍둥이가 아님은 쉽게 판명된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①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②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③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④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10. 정답: 4번
문제 유형: 비문학 - 내용 일치 유형
▷ 선혜국어 17.3. 동형모의고사 4회 11번 관련 내용
난이도: 하
<정답 해설>
마지막 문장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를 통해 ④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마지막 문단의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를 통해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마지막 문단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를 통해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임을 알 수 있다.
③ 세 번째 문장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를 통해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11.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① '청(靑)무우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②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③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
④ '삼월(三月)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11. 정답: 3번
문제 유형: 현대 시 <바다와 나비> 감상
▷ 선혜국어 2권 P.154 <바다와 나비> 분석
테마 특강 - '문학이 열리다(현대시 편)' 기출 들여다보기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마지막 연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를 통해 화자는 냉혹한 현실에 맞닥뜨린 '서글픈 나비'에 대해 비판보다는 안타까움이나 연민 등의 정서를 가지고 있으리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청(靑)무우밭'은 나비의 이상향 혹은 동경의 세계이고, '바다'는 나비의 날개를 절게 하는 냉혹한 현실이므로 서로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② 두 번째 행에서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고 했으므로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④ 나비를 서글프게 하는, 꽃 피지 않는 '삼월(三月)달 바다'와 지친 나비의 모습을 형상화한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파란색과 연결되어 '흰 나비'와 대립되는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문 12. <보기>를 참고할 때, ㉠ ~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그리는 소설 양식을 세태 소설이라 한다. 세태 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그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그 대표적인 소설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있다.

㉠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중에서 -

① ㉠ :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다.
② ㉡ :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다.
③ ㉢ :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로 서술자의 비판 대상이다.
④ ㉣ : 서술자가 '금광열'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다.

12. 정답: 2번
문제 유형: 현대 소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내용 분석
▷ 선혜국어 2권 P.224~225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분석
난이도: 하
<정답 해설>
㉡ '금광 브로커'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비판적이며 부정적이라는 것은 '황금광 시대.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개찰구'는 금광 브로커로 보이는 사내들이 서 있는 곳으로, 금광을 찾아 일확천금을 꿈꾸는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 된다.
③ '황금광 시대' 뒤에 바로 이어지는 구보의 한숨을 통해 유행처럼 금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곧 서술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조리한 현실이자 비판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④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서술에서 '금광열'이 고조된 대상이나 공간으로 ㉣이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 13. ㉠ ~ ㉣에 대한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빌기를 다 함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단상의 오색구름이 사면에 옹위하고 산중에 ㉠ 백발 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제물 모두 다 흠향한다. 길조(吉兆)가 여차(如此)하니 귀자(貴子)가 없을쏘냐.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 천상으로서 오운(五雲)이 영롱하고, 일원(一員) 선관(仙官)이 청룡(靑龍)을 타고 내려와 말하되,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더니 익성(翼星)이 무도(無道)한 고로 상제께 아뢰되 익성을 치죄하야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걸로 함심(含心)하야 ㉢ 백옥루 잔치 시에 익성과 대전(對戰)한 후로 상제전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 댁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부인은 애휼(愛恤)하옵소서."

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운 간(五雲間)에 방송(放送)하며 왈,

"㉣ 일후 풍진(風塵)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거늘 놀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하다.

정신을 진정하야 정언주부를 청입(請入)하야 몽사를 설화(說

話)한대 정언주부가 즐거운 마음 비할 데 없어 부인을 위로하야 춘정(春情)을 부쳐 두고 생남(生男)하기를 만심 고대하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 삭이 찬 연후에 옥동자를 탄생할제, 방 안에 향취 있고 문 밖에 서기(瑞氣)가 뻗질러 생광(生光)은 만지(滿地)하고 서채(瑞彩)는 충천하였다.

… (중략) …

이때에 조정에 두 신하가 있으니 하나는 도총대장 정한담이요, 또 하나는 병부상서 최일귀라. 본대 천상 익성으로 자미원 대장성과 백옥루 잔치에 대전한 죄로 상제께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적강(謫降)하여 대명국 황제의 신하가 되었는지라 본시 천상지인(天上之人)으로 지략이 유여하고 술법이 신묘한 중에 금산사 옥관도사를 데려다가 별당에 거처하게 하고 술법을 배웠으니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이 있고 백만군중대장지재(百萬軍中大將之才)라 벼슬이 일품이요 포악이 무쌍이라 일상 마음이 천자를 도모코자 하되 다만 정언주부인 유심의 직간을 꺼려하고 또한 퇴재상(退宰相) 강희주의 상소를 꺼려 주저한지 오래라.

-「유충렬전」 중에서 -

① ㉠ : 길조(吉兆)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② ㉡ : '부인'이 꾼 꿈의 상황이다.
③ ㉢ : '선관'이 인간 세상에 귀양을 오게 되는 계기이다.
④ ㉣ : '남악산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 세계로 복귀할 것임을 암시한다.

13. 정답: 4번
문제 유형: 고전소설 <유충렬전> 내용 파악
▷ 선혜국어 박문각 위성 17.2. 모의고사 3회 17번 동일 작품
난이도: 상
<정답 해설>

④ 타고 온 청룡을 하늘로 방송하며(풀어주며) "㉣ 일후 풍진(風塵)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했으므로 '남악산 신령'이 후일에 천상으로 복귀한다는 것이 아니라 풀어준 청룡을 후일에 다시 찾겠다는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① ㉠ '백발 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제물 모두 다 흠향한다.'의 바로 뒤에 '길조(吉兆)가 여차(如此)하니'라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길조(吉兆)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 맞다.
② ㉡의 앞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라는 서술이 있으므로 '부인'이 꾼 꿈의 상황이 맞다.
③ ㉢ '백옥루 잔치 시에 익성과 대전(對戰)한 후로 상제전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를 통해 익성과의 싸움 이후 선관이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음을 알 수 있다.

문 14. ㉠ ~ ㉣의 한자가 모두 바르게 표기된 것은?

<보 기>

글의 진술 방식에는 ㉠ 설명, ㉡ 묘사, ㉢ 서사, ㉣ 논증 등 네 가지 방식이 있다.

	㉠	㉡	㉢	㉣
①	說明	描寫	敍事	論證
②	設明	描寫	敍事	論症
③	說明	猫瀉	徐事	論症
④	說明	猫瀉	徐事	論證

14. 정답: 1번
문제 유형: 어휘 - 한자어의 표기
▷ 선혜국어 2권 P.34~35 <글의 진술 방식> 용어 설명
난이도: 중
<정답 해설>

- 說明 말씀(설) 밝을(명):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 描寫 그릴(묘) 베낄(사):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 敍事 차례(서) 일(사): 사건의 전개 양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있는 그대로 적음.
- 論證 말할(논) 증거(증): 어떤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을 근거를 들어 밝힘.

문 15.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것은?

① 병이 씻은 듯이 낳았다.
② 넉넉치 못한 선물이나 받아 주세요.
③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④ 옷가지를 이여서 밧줄처럼 만들었다.

15. 정답: 3번
문제 유형: 어문규정 - 한글맞춤법
▷ 선혜국어 박문각 위성 17.2. 모의고사 4회 3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③ '잠갔다'는 기본형 '잠그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이 결합되어 '—' 탈락 규칙 활용을 하면서 '잠갔다'가 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된다는 의미의 용언은 '낫다'이므로 모음어미 '-았'과 결합하여 'ㅅ'불규칙 활용을 하면 '나았다'가 된다.
② '넉넉하지'는 '하'의 앞이 안울림소리 'ㄱ'이므로 '하'가 탈락하

여 '넉넉지'로 줄어든다.
④ 옷가지를 연결한다는 뜻으로는 '잇다'를 써야 하므로 '잇다'에 어미 '-어서'가 결합되어 'ㅅ'불규칙 활용을 하면 '이어서'가 된다.

문 16. 훈민정음의 28 자모(字母) 체계에 들지 않는 것은?

① ㆆ
② ㅿ
③ ㅠ
④ ㅸ

16. 정답: 4번
문제 유형: 국어의 역사 - 훈민정음
▷ 선혜국어 심화 빈출코드 노트 P.16. 7번 문제 동일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순경음 'ㅸ'은 'ㅂ'과 'ㅇ'을 이어 적는 연서(連書)의 방식이 적용된 글자인데,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자음이 어울려 만들어진 글자는 28자에 속하지 않는다.

※ 초성 17자

종류	기본자	상형	가획자	이체자
아음(牙音)	ㄱ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ㅋ	ㆁ
설음(舌音)	ㄴ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ㄷ, ㅌ	ㄹ
순음(脣音)	ㅁ	입의 모양	ㅂ, ㅍ	
치음(齒音)	ㅅ	이의 모양	ㅈ, ㅊ	ㅿ
후음(喉音)	ㅇ	목구멍의 모양	ㆆ, ㅎ	

※ 중성 11자

종류	기본자	상형	초출	재출
양성	ㆍ	天: 하늘의 둥근 모양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음성	ㅡ	地: 땅의 평평한 모양		
중성	ㅣ	人: 사람의 서 있는 모양		

문 1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②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③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④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17. 정답: 1번
문제 유형: 어문규정 - 한글맞춤법(띄어쓰기)
▷ 선혜국어 1권 P.220 <보충>, 226~227 <보충>
난이도: 중
<정답 해설>

① '-하는 동안, -의 가운데' 등의 의미로 쓰이는 '중(中)'은 띄어 쓰지만, '한밤중, 부재중, 무의식중, 은연중' 등은 합성어로 붙여 쓴다.
<오답 해설>

② '-ㄹ뿐더러'는 어미이므로 어간에 붙여서 '잘할뿐더러'로 써야 한다.
③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만'은 앞말과 띄어 쓰므로 '두 시간∨만에'로 띄어 써야 한다.
④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의 '안되다'는 합성어이므로 붙여서 '장사가 잘 안된다'로 써야 한다.

문 18. 독음이 모두 바른 것은?

① 探險(탐험) - 矛盾(모순) - 貨幣(화폐)
② 詐欺(사기) - 惹起(야기) - 灼熱(치열)
③ 荊棘(형자) - 破綻(파탄) - 洞察(통찰)
④ 箴言(잠언) - 惡寒(악한) - 奢侈(사치)

18. 정답: 1번
문제 유형: 어휘 - 한자어의 독음
▷ 선혜국어 3권 P.22~ <03. 잘못 읽기 쉬운 한자>
테마특강 '한자가 열리다' 교재 P. 8, 9, 20, 67 외
난이도: 상
<정답 해설>

• 探險 찾을(탐) 험할(험):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함.
• 矛盾 창(모) 방패(순):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 貨幣 재물(화) 비단(폐):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되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
<오답 해설>

② 詐欺 속일(사) 속일(기): 나쁜 꾀로 남을 속임.
惹起 이끌(야) 일어날(기):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灼熱 사를(작) 더울(열): 불 따위가 이글이글 뜨겁게 타오름.
③ 荊棘 가시나무(형) 가시(극): '고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破綻 깨트릴(파) 옷 터질(탄): 일이나 계획 따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도에서 잘못됨.
洞察 꿰뚫을(통) 살필(찰):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④ 箴言 바늘(잠) 말씀(언):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惡寒 미워할(오) 차가울(한): 몸이 오슬오슬 춥고 떨리는 증상.
奢侈 사치할(사) 사치할(치):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함.

문 19.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ㄴ, ㅁ, ㅇ'은 유음이다.
②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③ 'ㅡ, ㅓ, ㅏ'는 후설 모음이다.
④ 'ㄲ, ㅚ, ㅗ, ㅜ'는 원순 모음이다.

19. 정답: 1번
문제 유형: 이론문법 - 음운론
▷ 선혜국어 1권 p.88 <실력 완성 문제> 유사 유형
난이도: 중
<정답 해설>

'ㄴ, ㅁ, ㅇ'은 성대의 진동을 받아 나는 소리인 울림소리이며, 코로 공기를 내 보내며 소리 내는 비음이다.

문 20. 내용의 전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나)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은 저 혜시(惠施)가 말하는 방생(方生)의 설이다.
(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照明)에 비추어 본다. 그리고 커다란 긍정에 의존한다. 거기서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또 저것도 하나의 시비(是非)이고 이것도 하나의 시비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
(라) 그러나 그, 즉 혜시(惠施)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역시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가) - (다) - (나) - (라)
④ (가) - (라) - (나) - (다)

20. 정답: 2번
문제 유형: 비문학 - 내용 재배열 유형
▷ 테마특강 '비문학이 열리다(문장 재배열 유형 편)'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재배열 유형은 선택지를 먼저 보고 가장 앞에 들어갈 문단에 대한 힌트를 얻어야 한다. 또 유사한 내용이나 동일한 키워드가 포함된 문단들은 이어질 확률이 높으므로 유심히 봐야 한다.

이 문제의 선택지는 모두 (가)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가)를 가장 앞에 두고 (가) 뒤에 이어질 내용을 찾으면 된다.

(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모든 사물은 상대적으로 '이것'이자 '저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는 '그러므로' '저것'에서 '이것'이 나오고 '이것'에서 '저것'이 나온다고 하여 '이것'과 '저것'을 동일시한 (나)가 적절하다. 또 (나)의 뒷부분에서 언급한 '혜시(惠施)'의 말에 대해 (라)에서 이어받고 있으므로 (나) 뒤에는 (라)가 이어져야 한다. (라)는 죽음과 삶, 옳다와 옳지 않다 등의 상대적인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다)의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로 내용을 이어갈 수 있다. 따라서 (가) - (나) - (라) - (다)가 자연스럽다.